

## 인터넷진흥원,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관련 설명자료

2018. 10. 17. (수)

침해사고분석단 : 이동근 단장(☎ 02-405-6620)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생활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IP카메라 해킹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IP카메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 제조 당시의 알기 쉬운 비밀번호(예 '0000', '1234' 등 제품모델 전체가 동일 비밀번호 사용)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IP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 현황을 파악하여 업체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8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400개 IP카메라 제품을 대상으로 ▲출시 단계부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마다 모두 동일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사용초기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실제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다만, 사용설명서 기반 조사방식의 경우 실제 제품에는 기능이 있으나 사용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정밀하게 구분해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조사 당시는 유통중이었으나 현 시점에는 단종 등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는 제품이 일부 있어, 인터넷진흥원은 이후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사용시 최초 비밀번호 설정 또는 변경을 의무화하는 제도(국립전파연구원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 개정)를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조·판매·수입업체는 초기 비밀번호를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탑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보안성이 높은 IoT 제품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IP 카메라 등 'IoT 제품 보안인증제'를 시행('17.12.29)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IP카메라에 대해서도 소유자에 통지 및 조치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IP카메라 등 IoT 보안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고 IoT 보안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